

국내파 vs 해외파 자존심 대결

KLPGA 두번째 대회 E1채리티오픈 28일 개막



박현경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에서 맨 먼저 투어를 재개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대회를 연다.

KLPGA투어는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이천 사우스 스프링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E1채리티 오픈(총상금 8억원)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치른 KLPGA 챔피언십에서 방역과 대회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해 자신감을 얻은 KLPGA투어는 E1채리티 오픈을 계기로 투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회도 여전히 갤러리 입장이 허용되지 않고, 철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건 KLPGA 챔피언십과 똑같다.

그러나 150명이라는 역대 최대 출전 선수에게 모두 상금을 지급해 '특별 대회'에 가까웠던 KLPGA 챔피언십과 달리 E1채리티 오픈은 예정된 날짜에 144명이 출전한 가운데 2라운드 종료 후 컷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열린다.

다만 작년까지 3라운드였으나 올해는 프로암을 하지 않는 대신 4라운드로 순위를 결정한다. 변별력이 더 높아진 셈이다.

총상금은 작년과 똑같은 8억원이고 우승 상금도

올해는 프로암 없이 4라운드로 치러 박현경·이다연·배선우 등 우승 노려 해외파 김세영·이정은·김효주도

1억6000만원 그대로지만 선수들은 겨우내 준비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4라운드 경기에 동의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주 무대인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은 KLPGA 챔피언십과 다르지 않다. 우승 경쟁이 국내파와 해외파의 리턴매치 가 된 셈이다.

KL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잠재력을 입증한 2년 차 박현경을 비롯해 최혜진, 이다연, 임희정, 이소영 등이 국내파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작년에 임희정, 조아연 등 동갑 친구들의 그늘에 가렸던 설움을 씻어낸 박현경은 2연승으로 초반 대세 장악에 나설 태세다.

지난해 미리 치른 2020년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우승자 이다연은 박현경과 시즌 2승 경쟁이다. 재작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이다연은 2년 만에 우승컵 탈환에도 나선다.

KLPGA투어 일인자로 꼽는 최혜진과 '무서운 신에' 임희정, 강호의 면모를 되찾은 이소영과 작년 신인왕 조아연 등은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2018년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율포유·레노마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던 이소영은 코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

국내 그린 적응을 마친 해외파 강자들의 반격도 매서울 전망이다.

KLPGA 챔피언십에서 사흘 동안 선두를 달리다 최종일 우승 경쟁에서 밀렸던 배선우가 눈에 띈다. 배선우는 2016년 이 대회에서 3라운드 내내 보기 하나 없이 20언더파 196타를 때려 우승한 좋은 기억을 지녔다. 196타는 당시 54홀 최소타 신기록이었다.

세계랭킹 6위 김세영, 10위 이정은, 13위 김효주 등 LPGA투어 3인방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KLPGA 챔피언십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실전 감각을 빠르게 되찾는 모습이었다. 이정은과 김효주는 특히 최종 라운드에서 나란히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이번 대회에 기대가 크다.

KLPGA투어 영구 시드권을 가진 안선주와 이보미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배선우

우열 못가린 LPGA 챔피언들 스크린 골프 대결

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 고-린드베리 1승 1패로 무승부



2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골프존 조야마루에서 열린 '골프존 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에서, 박인비(가) 스크린을 향해 스윙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챔피언들의 스크린 골프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지난 25일 열린 '골프존 LPGA 매치플레이 챌린지'에 출전한 박인비-유소연조와 리디아 고(뉴질랜드)-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의 스크린 골프 대결은 1승 1패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는 국내 스크린골프 전문 기업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대전 골프존 조야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경기 시작 시간은 한국 시간 25일 밤 8시, 미국 플로리다주는 같은 날 오전 7시였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는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유소연은 2011년 US오픈과 2017년 ANA 인스퍼레이션 등 메이저 2승을 달성한 선수다.

이에 맞선 리디아 고는 2015년 에비앙 챔피언십, 2016년 ANA 인스퍼레이션 등 역시 메이저 2승을 따냈고, 린드베리는 2018년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연장전 끝에 박인비를 물리친 경력이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요 골프 투어 대회가 중단된 가운데 메이저 챔피언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치른 이날 스크린 골프 대결은 1라운드 18홀은 포섬(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로 경기하는 방식), 2라운드 18홀은 포볼(두 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각각의 공으로 경기한 뒤 더 좋은 성적을 그 팀의 점수로 삼는 방식) 경기로 진행됐다.

1라운드에서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리디아 고의 버디 퍼트가 들어가며 승부가 갈렸다. 2라운드에서는 박인비-유소연 조가 4개 홀을 남기고 5홀 차 완승을 거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두 팀은 나란히 상금 5000달러(약 620만원)씩 받아 이를 코로나19 돕기 성금에 보냈다.

박인비는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의 대회에 함께 할 기회가 와서 감사하다.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서 각자 위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유소연은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연합뉴스

전남 휠체어컬링팀, 국가대표 선발전 겨냥 훈련 재개

전남 휠체어컬링팀(스나이퍼)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겨냥해 훈련을 재개했다.

26일 전남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스나이퍼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강릉 컬링센터에서 3개월 만에 훈련을 시작했다.

스나이퍼 휠체어컬링팀(감독 김종일, 스킵 정승원, 서드 차진호, 세컨 민병석, 박용석, 리드 방민자)은 팀웍을 위한 전술훈련과 개인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김종일 감독은 "평창에서 호흡을 함께한 선수들이 합류한 만큼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도움을 준 전남도와 전남장애인체육회,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는 스나이퍼 컬링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안정적인 훈련지원을 위해 팀진원을 한전KDN과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선수로 등록시키는 등 뒷받침하고 있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훈련 여건이 어려운데도 열정을 쏟고 있는 선수단이 고맙다"며 "컬링장 인프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휠체어컬링팀(스나이퍼)이 최근 강릉 컬링센터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왼쪽부터 정승원·박용철·민병석·차진호·방민자 선수, 김종일 감독.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지역 장애인들 평생교육 참여 확대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광주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손을 맞잡았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양 기관은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콘텐츠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확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콘텐츠 발굴 ▲기관의 운



영매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공동추진 ▲보유시설 등 이용 편의 제공 등이다.

서용규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바탕

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위대한 쇼맨
- 2관 언더워터
- 3관 아홉 스님, 초미의 관심사
- 4관 더 플랫홈
- 5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 6관 더 플랫홈, 버킹엄 제인, 나는보리
- 9관 날씨의 아이, 미스비헤이버, 호텔 레이크
- 7관 씨네커머 위대한 쇼맨, 그림, 통보이
- 8관 씨네커머 아홉 스님, 하이킥! 또 다른 도전 오피파지: 비밀의계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2020. 5.27.(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